

발제신청서 및 발제문

단체 이름	단체 대표 성함	발제신청자	
신촌대학교	윤범기	홍승희	
참가하게 된 동기 & 얻어갔으면 하는 것			
<p>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한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왔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때다. 흩어져 있는 청년들의 에너지를 만나고 싶다.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뭐든, 뭐라도) 시작하고 싶다.</p>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누구든, 뭐든, 뭐라도 하자
지정 질문 (3 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p>간첩조작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중리스트, 탄저균반입과 메르스사태 등 등. 한마디로 지금 우리사회는 무너지고 있는 건물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함께 건물을 지을 사람들 모이고 만나야 한다. 청년이든, 누구든. 그리고 무엇이든 해야한다.</p> <p>청년들의 파편화, 높은 자살율</p> <p>사실 청년 정치세력화는 청년들이 살고 죽는 문제다.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p> <p>극에 달한 사회모순이 개개인의 삶의 위기로 이어졌다. 공동체의 붕괴로 모든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다보니, 힐링을 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채찍질을 한다.</p> <p>개인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자,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이 인식에서 시작하는 연대의 회복, 연대의식이 곧 정치세력화다. '사실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줄 낮은 연대가 필요하다. 그 연대에서 진정한 정치세력화가 시작된다.</p>

Q2. '청년 정치세력화'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정치지형의 균열과 새로운 정치

지금같은 정치지형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사상검증과 언론장악, 기울어진 운동장에 뿌리깊은 양당제. 당연히 편협하고 부기형적인 정치지형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기성정치논리를 뛰어넘는 관성화되지않은 청년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청년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같은 입장의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2. 새로운 가치 생태계의 '집권'

청년 정치세력화의 핵심은 '공동체회복'이다. 새로운 가치의 생태계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시민사회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문화예술단체, 교육생태계 등 특히 서울시의 민관협력과 청년연계정책 등. 이들의 가치와 창조적활동이 정치 전면에 드러날 때다. 정책발의 등 다양한 정치활동의 문턱낮은 통로를 확장하고 제안해야 한다. 힘있는 정치세력화는 생태계, 공동체에서 가능하고,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정치세력화는 필수다.

3. '중심문제' 돌파하는 힘

대안이라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심문제를 돌파해야한다. 경제민주화에서 창조경제로 옮기며, '창조적' 청년창업에 가려진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가 그렇다. 많은 대안담론들이 오고가도, 중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중심문제란 부패한 정권과 경제민주화의 실패, 무너진 민주주의다. 무너지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정치행동이 절실하다.

Q3. 2016 년 총선, 17 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1. 뭐든, 뭐라도 해야한다.

정책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청년들은 잃을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을 포괄하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 한다.

2. 절박한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정치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함 한가운데 있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그들을 대변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청년정치세력화의 중요한 열쇠다.

3. 메시지를 전면에

정치 자체보다 왜 정치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의 확산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절박한 요구를, 혹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어떻게 공감을 얻고, 어떤 가치를 확산할 것인가? 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내가 무엇을 할까 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할 때.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등 국가적 위기 정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청년 '의제' 중심의 연대를 넘어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 목소리가 있음" 자체가 주는 울림이 더 클 것이다.

어떻게 의미를 모으고, 정치의 통로를 제시하고, 실천의 장을 확대할 것인가.

관성화된 실천과 인식을 뛰어넘는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낡은 기성정치프레임을 뛰어넘고, 공간통치에 '졸지 않고', 새로운 가치의 생태계로 주도적으로 의제를 만들어가는 청년조직, 연대체가 필요하다. 다양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조직. (청년행동조직, 청년긴급행동(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들이 있었다. 반값등록금 운동도 있었고,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의 울림도 있었다. 나꼼수 등으로 유쾌한 정치인식이 많이 확산하기도 했지만 이후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실천의 장이 부족했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문제를 알아도 뭘 해야할지 몰라서 무기력하다. 실천할 수 있는 통로, 매개,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노출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실천조직, 프로젝트 그룹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방법 다양한 매체와 질료를 활용해 정치를 청년의 삶에 가져다놓기

클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청년정치세력화, 청년정당 출판프로젝트, 정치대중화를 위한 정치관심 유발사업

네잘못이 아니야 프로젝트 : '네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난민이 아니다.' 정치가 문제야. 신촌과 노량진 일대에 거리예술

SNS 청년정치커뮤니티, 동영상 제작, 공모전, 백일장, 토크콘서트 등,

국제연대 : 일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 SEALDs

SEALDs (シールズ :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 s)

발제에 필요한 실무준비가 있나요? (ex. PPT 를 써야한다, 영상을 봐야한다)

빔 프로젝터로 볼 화면들 -> <http://www.sealds.com/> 홈페이지 - 안의 영상도
봐야함

<https://www.facebook.com/saspl21> 페이스북